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신학 전문, 세션 10, 삼위일체 마무리, 신의 속성, 서론 및 전달 불가능한 속성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학 자체 또는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삼위일체 마무리, 신의 속성, 서론, 그리고 비전달적 속성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신학 자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고 평등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구성하는 일곱 가지 원리 중 일곱 번째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부는 하나님께서고, 성자는 하나님께서고, 성령은 하나님께서고, 그 인격은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할 수 있으며, 서로 내주하고, 마지막으로 성서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고 평등하다고 말할 때 우리를 손을 잡고 삼위일체적 결론으로 이끕니다.

삼위일체적 세 인격을 일체성과 평등성으로 결합하는 구절은 우리의 결론을 확증합니다. 일체성과 평등성으로 세 인격을 결합하는 텍스트는 풍부하지만 우리는 신약 서신과 요한 계시록의 세 저자만 복음서에서 샘플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명령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8:19).

이름은 단수이지만 세 사람의 이름이 뒤따르며, 이는 세 사람이 하나임을 암시합니다. 더욱이 세례는 오직 신의 이름으로만 행해지며, 이는 세 사람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세 분은 한 분의 신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다르며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의 축복에서 세 사람을 신성한 축복의 근원으로 묘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3:12.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 사랑, 교제를 베푸시고, 그것이 바로 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3:14이어야지 12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친절, 사랑, 자비를 구원의 근원으로, 성령의 거듭남과 새신을 구원의 적용으로, 그리스도를 성령의 통로로 제시합니다(디도서 3장 4절~6절). 꼭 읽어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주의 선하심과 자비가 나타나 시어 우리가 의롭게 행한 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자비하심에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신으로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히 부어주소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3:4~6. 그 인격들은 서로 구별되고 서로 혼동되지 않으며, 각자 구원에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성령과 거짓 영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 2.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4:2. 각각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각각은 그분의 진리를 전달합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의 성육신을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3절. 영들과 그들이 영감을 주어 성육신을 부인하는 교사들은 적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후에 유다는 유다서 20절과 21절에서 독자들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기다리십시오. 유다서 20절과 21절.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곧 복음의 기초 위에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주제로 돌아가서, 1절에서 유다는 독자들에게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에게서 자비와 영생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시 세 인격을 구별하여, 아버지의 사랑,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1:4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이 일곱 교회에 계시록 1:4에서 하나님을 쓰는 대신 “이제 계시고,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라고 씁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성부, 영, 성자를 가리킴, 4절과 5절. 요한은 세 인격을 구별하고 그들이 신성한 축복을 주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신성한 지위를 암시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결론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인격들은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비롭게도, 그들은 서로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성한 본질 안에 있는 세 인격으로 말입니다.

세 인격을 통일성과 평등으로 결합하는 텍스트가 복음서, 세 명의 다른 서신 저자,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신약의 증거의 폭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때로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표현을 다른 속성과 결합합니다. 다음 구절들은 각각 그분의 주권, 신실함, 그리고 권능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시편 135:5, 6. 나는 주께서 위대하심을 압니다.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위대하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느헤미야 1:5.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지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여.
느헤미야 1-5장.

예레미야 10:6, 7. 주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권능이 큼니다.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만국의 왕이시여?당신께서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모든 만국의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의 모든 왕국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이가 없나이다. 예레미야 10:6, 7.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8:1, 148:13.

그들은 또한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찬양합니다. 시편 145:3-6. 주님은
위대하고 높이 찬양받으십니다.

그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당신의
행위를 전하고 당신의 위대한 행위를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위엄과 당신의 놀라운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외로운 행위의 권능을 선포할 것이요, 나는 당신의
위대함을 선포할 것입니다. 시편 145:3-6.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를
그분과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게 합니다.

시편 86:8-10. 96:3-5. 누가복음 1:46-48.

그것은 우리를 그분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시편 96:3-5. 예레미야 10:6-7.

그의 주권적 손에 복종하라. 시편 135:5-6. 그리고 그의 언약적 신실함을
신뢰하라.

느헤미야 1:5. 하나님의 위대함은 또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시편 145:3-6.

신에 대한 교리에는 세 가지 주요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구분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신, 즉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먼저 두었고 신의 속성은 먼저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속성은 삼위일체이신 신의 인격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의 속성, 서론. 삼위일체 교리를 탐구한 후, 우리는 신의 속성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밀라드 에릭슨의 *기독교 신학을 인용한 것으로*, 체계 신학 서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 꽤 오랫동안 에릭슨의 책이 그 책이었습니다. 밀라드 에릭슨 *기독교 신학*, 291쪽.

그가 신의 속성을 정의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인용문, 신이 무엇인지 구성하는 신의 특성, 바로 그의 본성의 특성입니다. 인용문 닫기.

그것들은 본질적이고, 영원하고, 영구적이며, 객관적이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표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고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분의 성품의 깊이를 파헤치지 못할 것입니다. 새 땅에서 부활한 성도로서도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배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속성을 영원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이셨고, 계시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실 것입니다. 그의 속성은 영원하고 따라서 영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고,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선하고, 등등이셨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속성을 지나치게 차별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을 다양한 형용사와 이미지로 묘사하지만, 실례합니다만, 그는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통합되어 있고, 분리된 부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성은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래에 우리는 신의 20가지 이상의 속성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20번째 거룩함, 120번째 사랑, 충실함 등이 아닙니다. 신은 전적으로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충실합니다.

넷째, 신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성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속성으로 진실하게 특징지어지는 우리의 유일한 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랑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주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주권자이십니다. 그의 사랑은 주권적 사랑이고, 주권은 사랑의 주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전능하다는 것이 그가 권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의 거룩함은 그의 모든 강력한 행동도 거룩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또한 존 프레임의 책, 신의 교리와 존 파인버그의 책, 철학적으로 더 잘 알려진 논설, 그와 같은 사람은 없다, 신의 교리를 추천합니다. 파인버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글은 철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는 제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진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실하고 진실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속성을 진실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알 수는 없더라도요.

찰스 호지는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신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해는 신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은 실제로 하나이고, 개인적이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등등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인간의 설명, 인간의 범주, 인간의 이미지입니다.

신이 인간 형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인간과 소통할 수 있겠는가? 신은 우리의 문화, 사고 형태, 말, 이미지를 비유로 사용하여 자신과 자신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우리는 그것들이 신이시며,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말로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분인지 진실하게 전달하는 데 타당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가 말로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로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하라.

명제적 계시의 개념은 신의 개인적 계시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속성은 모든 시도를 특징짓습니다.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속성을 분류하려는 모든 시도는 처음부터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속성을 전달 불가능하고, 독특하며, 전달 가능하고, 공유되는 것으로 논의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없는 20개 이상의 심오한 속성의 긴 목록은 우리가 종합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속성을 비전달적이고 전달 가능하다고 부르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범주가 겹치지만, 범주화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비전달적 속성은 이 구별을 강조합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존재를 위해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는 전능합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위치합니다. 그는 전능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어 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른 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성격에서 하나님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유 가능한 속성은 이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으며, 그분의 형상에 맞게 변화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분을 반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결코 스스로 존재하거나 무한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분의 비공유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구속받은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분의 공유적 속성을 반영할 수 있고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창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지혜로 자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는 점점 더 진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실하시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신은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합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신의 속성을 분류하면 이 중요한 진실이 강조됩니다.

기독교적 삶의 덕성, 성령의 열매, 행복의 축복 등, 그리고 교회의 표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전달 가능한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전달 불가능한 속성, 이것들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특성이나 특징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전달 불가능합니다.

그는 이것을 그의 백성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은 살아 계시며, 전통적으로 aseity라고 불립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신이 자신의 존재를 위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은 살아 계신다. aseity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위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감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요한복음 5:26).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자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사도행전 17:24, 25,은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속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미지로는 생수의 샘, 예레미야 2:13이 있습니다.

아무도 신을 만들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존재해 온 살아 계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바빌로니아 우상들이 겁먹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묘사합니다(이사야 46:1, 2). 선지자는 나무로 손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지자는 그가 하는 일 을 조롱합니다 .

그는 불을 피우고, 이사야 44:15-17. 그는 불을 피우고 빵을 굽는다. 그는 그것을 신으로 만들고 경배한다.

그는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합니다. 그는 그것의 절반을 불에 태우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는 구운 것을 먹고 만족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경고하며, 아, 나는 따뜻해. 나는 불길을 본다. 그는 나머지로 신이나 우상을 만든다.

그는 그것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니 ,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니, 이사야 44 :15-17. 성경에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풍자적 유머가 있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과 대조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 그분은 인격적이시며 심지어 언약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헌신하시고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그분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33.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의 통일체이십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는 일체이십니다. 그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따라 첫 번째 요점으로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 사용했던 세 구절 중 일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인데, 이스라엘의 유명한 세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구절의 첫 단어입니다. 세마 이스라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 진리를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미안합니다. 두 사람이 모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목회서에서 구세주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전서는 때때로 아버지를 지칭하고, 때때로 아들을 지칭합니다. 아들을 지칭할 때는 언제나 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목회서에서 일반적으로 구세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혼란이 있었지만, 폴 자신이 그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손으로 잡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지의 좌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그는 3절에서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맡겨진 복음, 전파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그는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아들을 언급할 때는 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변형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디모데전서 2장은 좋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계약적 맥락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지도자들, 심지어 신앙에 반대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불경건한 지도자들까지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적절한 때에 주어진 증거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5. 그리고 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신명기 6:4. 디모데전서 2:5.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야고보는 냉소적인 논평에서 공언하는 유대인, 아마도 공언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방탕함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쉘마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2:19.

잘 하셨습니다. 악마들도 믿고 떨고 떨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 적어도 악마들은 떨고 있습니다.

제임스, 청중 여러분, 적어도 그들 중 일부는 떨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검증 행위와 신앙을 결합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입니다.

일신교는 구약과 신약의 신 교리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신은 영입니다. 신은 거룩한 영적 존재이며 우리와 같이 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속성은 신의 영성이라고 불립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용문: 신은 영이시며 그를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24.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온산에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는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언약의 예배는 한 지리적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예배는 영적인, 즉 영적인 예배이며, 진실로, 즉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데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존을 물리적으로 나타내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2~6. 성전 환상 속에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6:1, 4. 오순절에 불과 바람으로, 사도행전 2:1~3.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리적으로 나타내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진 것처럼, 숫자 625, 시편 34:16, 눈과 귀를 가진 것처럼, 시편 34:15, 손, 출애굽기 6:1 등을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물리적 존재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 눈과 귀, 손 등을 가진 것처럼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물리적 존재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인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을 인간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보이지 않으시고, 디모데 전서 1:17, 우상 숭배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 디모데전서 1:17은 찬양입니다. 찬양, 디모데전서 1:17, 바울은 그냥 터져나옵니다.

가자. 영원의 왕, 불멸하고 보이지 아니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원의 왕일 뿐만 아니라 불멸이시며 사람이 아니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것은 그가 영이고,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구약성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아무것도,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을 때 이것을 반영합니다. 신명기 4:15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구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매우 주의 깊게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스스로를 위하여 어떤 형상의 조각상을 만들어 부패하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나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나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새의 모습이나 땅에 기는 어떤 것의 모습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만상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끌려가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이니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물의 어떤 부분과도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이시며, 그분은 영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만이 무한하십니다. 무한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무한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높고 고귀한 자, 이사야 57, 15가 포함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한하다고 가르치며, 특히 그의 능력과 이해력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한함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위대함,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과장된 표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철학적으로 무한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은 무한한가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7:5. 시편 147:5.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방대합니다. 그의 이해는 무한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지요, 온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결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이해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사야 40:28.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그의 힘의 강력한 역사에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18, 19. 하나님의 무한함은 그의 유일한 속성이 아니라 그의 나머지 속성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무력할 수 있고, 불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전능하며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바빈크(Hermann Bavink, 1854~1921)는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개혁 전통의 선도적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일반적인 논리에 도전했습니다. 동료들뿐만 아니라 연장자들도요. 네덜란드에서는 모두가 복음주의자였습니다. 네덜란드 보수 교회는 보수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큰 주류 학교, 큰 자유주의 학교에 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교사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건 현명하지 못한 일이고, 등등. 그는 장로들에 대한 큰 존경심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매우 광범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성경적 정박지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주의와 개혁 신앙을 옹호하며 글을 썼을 때, 그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폭과 이해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는 윤리 교과서를 포함하여 많은 것을 썼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4권짜리 체계적 신학인 개혁 교의학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에서 공부한 로버트 반노이 교수가 있었고, 찰스 호지스 체계신학과 버크호프 체계신학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버크호프는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었고, 반노이는 "그것들은 좋고, 나는 그것들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바빈크가 더 낫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바빈크는 놀랍습니다.

그는 자유주의와 높은 수준에서 상호 작용하고, 철저히 보수적이며, 매우, 매우 재능이 있고, 다행히도 그 책들은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단권의 Bavinck를 가지고 있고, 4권이 있습니다. 읽기 쉽지는 않지만, 경건한 독서이고, 성경적인 독서이며, 오래되었지만,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바빈크는 내가 읽어줄 인용문에서, 신이 그의 창조물보다 훨씬 위에 있고, 초월적이며, 가까이 있고, 임박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용문, 그의 계시에서 자신을 마치 특정한 장소, 시간,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신이 동시에 자연의 전체 영역과 모든 피조물보다 무한히 높여졌습니다. 이 시간적이고 지역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성경의 일부에서도 그의 숭고함, 높임, 전능함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원을 거니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지은 집에 거하시지만, 하늘에도 담길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8:27. 한마디로,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두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들과 함께

게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고상한 분입니다

이사야 57:15. 정말 놀라운, 놀라운 구절이네요. 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는 우리에게 요약해 주었을 뿐인데, 와우. 이사야는 구약의 로마인과 같아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걸 시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는 성경에 있는 책만큼 영적인 책입니다. 저는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우.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 피그미인지 보고 싶다면.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감을 받았고 유익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높고 드높은 자, 영원히 거하시는 자,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노라.

바빈크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주님은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10년 동안 그 책들이 번역되었을 겁니다.

제 나이가 아마 20살에 가까울 테지만, 그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의 무한함은 다른 속성들도 특징짓습니다.

그는 무한히 거룩하고, 무한히 강력하며, 등등. 에베소서 2-4장에는 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바빈크의 작품에 대한 번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20에 가깝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는 하나님의 완전함의 무한함 또는 위대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은혜의 부요함, 1:7, 우리에게 주신 그의 능력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함, 그의 힘의 강력한 역사, 에베소서 1:19에 대해 말하고, 그는 다른 모든 권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1:21.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고 큰 사랑을 특징으로 하며, 2:4,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2:7. 바울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선포합니다, 3:8. 교회는 하나님의 다면적인 지혜를 나타냅니다, 인용, 10절.

우리의 힘은 그의 영광의 부에 따른 것입니다(16절). 바울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무한함을 표현할 단어를 찾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즉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18, 19.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참으로 이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3:20.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전달적 속성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훌륭한 전달적 속성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신학 자체 또는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삼위일체 마무리, 하나님의 속성, 서론, 그리고 비전달적 속성입니다.